

# 민간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필요

건설협회 관계자 “민간 발주자의 대금체불 등 건설업체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주장

민간 공사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 건축주들의 공사비 미지급 등 ‘갑(甲)질’을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에 대한 의무화된 대금지급 보증제를 원도급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19일 건설협회에 따르면 민간 발주자와의 대금 지급 분쟁, 불공정 하자 제기 후 준공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공 공사처럼 민간공사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 원도급사의 공사대금과 하도급 대금을, 민간공사는 하도급 대금을 각각 의무적으로 지급보증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간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선택사항이다. 민간공사 발주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면 반대 급부로 원도급자

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대금지급보증의 의무가 아니더라도 건설사들이 민간 건축주에 맞서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민간 발주자의 대금체불 및 지연지급 등으로부터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실효적인 대금지급 확보를 위한 발주자 대금지급보증제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건설시장은 민간 건축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 총 수주액 164조8757억원 중 민간부분이 117조5000억원(71.3%)으로 공공(47조4000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공종별로는 건축(126조6798억원)이 76.8%, 토목(38조1959억원)을 압도한다. 결국 100조원이 넘는 민간 건설시장이 공사대

금 지급보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민간공사 이행체계에서 ‘발주자-원도급자’만 대금지급보증에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협력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는 민간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련 연구용역도 말간한 발주자 대금지급보증제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민간에서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원-하도급 간 지급보증은 건설업자가 대상이지만 공사대금은 민간 사업주와 건설업자 간 지급보증이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늘어나는 보증수수료 부담을 누가 부담할 지도 논란적이다. 법안이 아닌 개인 사업주의 경우 수수료를 산정할

위한 신용평가가 쉽지 않고 자칫 ‘수수료 폭탄’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민간 영역의 100조원 규모 보증을 서울보증보험 등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의 경우 예외규정을 뒤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한 것처럼 공사대금지급보증도 적용범위를 조정해 민간 건설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 건축주의 지위남용으로 인한 공사대금 지연 등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장치로 지난해 7월부터 건축물착공 때 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가 착공신고서에 서명하는 이른바 ‘시공자 간 지급보증’이 도입된 시점 중이다. 건설업계는 이 제도 도입으로 매년 500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미수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재홍 기자



한전무주양수발전소,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협력 체결

한국전력 무주지사는 19일 무주지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와 공동으로 해당 발전소 하부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4.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이 청정 에너지원인 수상태양광을 한수원이 보유한 전국 7개 양수발전소 수상태양광 보급에 한전-한수원 간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수홍 무주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발전소 및 선로 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신속한

선로 연계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공동 노력하고, 덕유신곡공원, 무주리조트, 반디랜드 등과 더불어 무주를 대표하는 명소를 건설함과 동시에 수상태양광을 중심으로 전방위 신재생 에너지 확산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주양수 수상태양광 사업은 오는 9월 사업 심의회의, 11월 이사회, 12월 태양광 구축 착수, 2018년 12월 태양광발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안재홍 기자

## 색소침착형 피부질환 예방... ‘익힌 숙잠’을 먹자

농진청, “자외선 의한 피부가 검게 타는 ‘흑화’ 억제·피부미백에 큰 효과”

‘익힌 숙잠’이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검게 타는 것을 막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힌 숙잠’은 완전히 지라 흡수에 전사단백질이 가득 찬 익은누에(숙잠)를 수증기로 찌서 동결 건조한 것을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동의대학교 바이오응용공학부 이현태 교수 연구진과 함께 ‘익힌 숙잠’이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검게 타는 ‘흑화’를 억제하면서 피부미백에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동물실험으로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실험용 누드마우스에 150mJ/cm2/회의 자외선(UVB)을 이틀에 한 번씩 쬐어 주

고, 다양한 색상의 고치를 짓는 누에품종의 ‘익힌 숙잠’을 매일 일정 용량으로 먹여 실험한 결과다.

색차계를 이용한 피부 밝기도 측정결과, 연녹색 고치를 짓는 누에 품종(연녹잠)으로 만든 ‘익힌 숙잠’을 먹인 실험쥐가 가장 우수한 41%의 피부밝기도 개선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백색고치를 짓는 ‘백옥잠 익힌 숙잠’도 비교적 우수한 30%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안관찰 결과 자외선을 쬐인 실험쥐의 피부는 흑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자외선을 쬐더라도 ‘익힌 숙잠’을 지속적으로 먹인 실험

쥐의 경우 흑화 정도가 덜해 피부가 상대적으로 밝고 깨끗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흑화 유발물질인 ‘멜라닌’ 색소 생성정도를 조사한 결과, 자외선만 쬐인 실험쥐는 ‘멜라닌’이 피부조직에 과도하게 생성된데 반해, 자외선을 쬐이면서 ‘익힌 숙’을 먹인 실험쥐는 ‘익힌 숙잠’ 섭취량 증가에 비례해 ‘멜라닌’이 뚜렷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섭취용량에 대한 실험 결과, ‘연녹색 익힌 숙잠’을 실험쥐 1kg당 1일에 0.5g 이상 섭취 시 우수한 효과 나타내 적정 섭취용량은 성인(60kg) 기준 하루 2.5g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익힌 숙잠’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태양광에 노출되더라도 피부가 덜 검어지고, 과도한 멜라닌 축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미, 주근깨, 잡티, 검버섯 등의 색소침착형 피부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지상력 기술서기관은 “자외선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익힌 숙잠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햇빛에 노출되더라도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돼,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양잠농가의 소득 증대 및 유관 산업발전 기여에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재홍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0만명 돌파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지난 15일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07년 출범 이래 10년만에 이룬 성과로서 일본의 유사제도인 ‘소규모기업공제제도’가 100만 가입자 돌파에 15년이 걸렸고, 전문기관(보험개발원, 2006년)도 100만 가입자 달성에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을 볼 때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원금보장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부리 이자가 지급되며,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시 받게 되는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임류금지)보호되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50%)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 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현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은 “전북지역은 소기업·소상공인중 약 9만명이 가입하여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에 들어와 있다”며 “우리지역의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재홍 기자

전주국토, 과적·적재중량초과 차량 합동단속 실시

익산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오는 30일까지 도로과속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을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과적차량뿐만 아니라 적재중량 초과차량, 적재불량 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해

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 합동단속은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및 우회도로 갈목 등에서 불시에 시행할 계획이며, 합동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안재홍 기자

전북은행은 여름 휴가철과 방학 시즌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환전 고객을 대상으로 전북은행 환전 마라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 기간동안 개인 고객이 전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

전북은행, 환전 마라톤 이벤트 진행

넷뱅킹, 뉴스마트뱅킹을 통해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 시 주유통화(USD, EUR, JPY)는 최대 70%, 중국

위안화(CNY)는 30%의 우대환율이 적용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환전 고객에게 좋은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며, “추석 환금 연휴에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환율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안재홍 기자

전라북도 전북농협

## 자연의 건강한 미소

#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